불자 세상보기

우리는 선우 6월 토요법석
세계 지성이 불교에 매료된 까닭

조성택 고려대 교수(우리는선우 이사장)는 6월 1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린 우리는 선우 6월 토요법석에서 '세계 지성인들이 불교에 매료된 까닭'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양인이 불교에 매료된 까닭을 문명사적 배경과 인도의 종교문화와 붓다 출현의 의의를 들어 설명하고, 현대 한국불교가 극복해야할 장애물 네 가지를 강조했다. 〈편집자주〉



"깨달음·과거 집착 등…한국불교 발전 막아"

조성택
고려대 교수

불교, 깨달음 실천하는 종교

한국불교를 대승불교라 한다. 그러나 과연 조계종이 대승불교인지 궁금하다.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應無所住 以生其心]고 했지만 한국불교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한국불교에 걸려있는 장애물 네 가지가 있다. 첫째가 깨달음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있다. 많은 불교 개론서, 포교원에서 나오는 불교입문서를 보면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 돼 있다. 누구든 불교를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 생각하듯 우리에게 그만큼 일상화 돼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불교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다.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데 좇아가고, 바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실천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의 실천은 팔정도의 삶에 있다. 팔정도는 부처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 부처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선원에 30~40년 앉아 있다고 불교가 아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따로 골방에 앉아서 하기보다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깨달음만이 불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프로야구 보듯 깨달음 관전하는 재가자들

재가자들은 깨달음 자체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스스로를 '머리 깎은 스님들도 30~40년 있으면서 못깨닫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서로 관전평한다. 우리 스님이 더 깨달았다, 너희 스님은 덜 깨달았다…. 프로야구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스님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그러니 스님들은 알쏭달쏭한 법문을 하게 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된다. 언어라는 것은 소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스님들은 중얼중얼 하다가 "~알았느냐."하는데 우리는 무슨 소린지 모른다.

故노무현 대통령 49재때 여러 종교단체에서 집전을 했다. 종교가 어떻게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른 종교들은 명확하게 자기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불교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다 "~니라"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국불교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신비화 시켜놓든지, 엄청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재가자는 쳐다만 보고 좇아가게 해놓고 스님이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재가자들은 관중이 돼 버린다. 불교에는 성직자란 말이 없다. 모두가 수행자다.

석굴암·원효 대사만 불교인가

두 번째 장애물은 불교에 대한 자랑이 전부 과거만을 말하는 것이다. 석굴암의 위대함, 원효 스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갖고 이야기 하는 불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불교는 우리 스스로 불성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가 아닌 과거만을 말한다. 과거 전통을 재현하는 것이 불교처럼 돼 버렸다. 불교는 전통이 아니라 현재다. 전통이긴 하지만 현재에 있는 전통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생각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교다. 왜 우리는 과거만 쳐다보고 과거지향적인 것만 생각만 하는 것인가.

초기불교만 근본불교라는 생각 지양해야

세 번째 문제는 근본불교에 대한 생각이다. 근본불교라는 말이 1990년대부터 한국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조계종단에 실망한 분들이 〈아함경〉이나 빨리경전 등 초기불교경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초기불교를 근본불교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불교는 성경과 달리 본래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종교가 아니다. 초기경전이 부처님의 직설일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도 세계불교학자들 가운데 '근본적인 것만이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초기근본불교주의자다. 이런 생각은 불교를 대단히 근본주의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위빠사나, 간화선 모두 부처님 가르침

마지막 한 가지는 한국불교가 다불교적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티베트·미얀마·대만 불교 등 전세계 불교가 한국에 공존하고 있다. 미국, 유럽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불교가 들어 와있는 전통적 불교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이 상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한국이 새로운 불교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못보게 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특정 전통이나 경전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전에 녹아있다. 때문에 우리는 위빠사나, 간화선 모두 부처님 가르침 맞지만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발언대

조계종 첫 사찰음식축제 의미

사찰 음식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3 사찰음식대축제가 6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막돼 9일까지 4일동안 진행됐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사찰음식 축제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사찰음식의 발전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이날 대회의 의미와 사찰음식의 미래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주〉

"사찰음식 전통 전하는 일 이제 시작"



정산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21세기,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교적 가치에 입각한 삶의 지표와 생활방식을 갈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최근 국내 사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내 유수의 사업체들까지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사찰음식에 대한 이런 국민적 관심과 애정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사찰음식의 정신과 문화, 전통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졌다. 사찰음식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민족음식, 전래음식의 원형에 가깝다. 그 것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서구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사찰음식에 매진하는 이들의 바람이다.

사찰음식대축제는 '소식 캠페인 선포식'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 깊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소식 캠페인은 '웃을 소(笑), 작을 소(小), 채소 소(蔬)라는 세 개의 주제를 통해 사찰음식이 지닌 감사와 나눔, 비움의 정신을 널리 알려서 내 자신과 우리 이웃, 나아가 지구환경 모두가 건강해지길 기원하는 운동이다. 일반인들이 사찰음식에 친근감을 갖고 생명존중, 친환경, 은혜의 뜻이 담긴 사찰음식문화에 젖어 들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사찰음식 대중화 발돋움 기회 되길"



적문 스님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
연구소 소장

그동안 사찰음식축제는 각 사찰이나 지역별로 개최돼 왔다. 조계종 차원의 첫 사찰음식대축제는 이제 사찰음식 대중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생활 속에서 사찰음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르겠냐만은 이번 대회 개막식이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열린 것과 무더운 날씨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사찰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종단에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회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사찰음식이 일반 시민들의 밥상에도 오르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찰음식대회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찰음식대축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 인상깊었다. 어려서부터 사찰음식과 채식 등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채식 등이 바로 불교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찰음식 꼬마요리왕 선발대회 등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사찰음식은 이제 단순히 조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수행과정과 결합시켜 보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社說

현실 감각에 맞는 승가청규 기대

앞으로 조계종 스님들은 육식·도박·유흥주점 출입 금지, 고급차나 고급호텔 이용 금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주거할 수 없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6월 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을 의결했다. 조계종은 승가 청규(淸規, 청정한 규칙)에 대해 선원청규, 총림청규 등 특정 분야의 청규가 아닌 종단의 전 스님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편적 청규라고 설명했다.

청규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5대 가치인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분야로 나눠 행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규범은 승려가 구두·등산화·운동화 등 고가 제품을 착용하는 것을 삼가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말 것을 권했다. 사찰음식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질병, 요양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육식을 허용했다. 또 값비싼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출입, 주식·펀드 투자, 호화 스포츠도 삼가도록 했다. 지나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회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할 때는 개인적 견해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도록 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도박, 유흥주점 출입·음주 등과 같은 막행막식 행위는 종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 내용을 별도 안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은 종무회의 의결, 종정스님 보고 및 교시 등 절차를 거쳐 청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청규들을 좀 더 보완해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청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규약이 되길 바란다.

불교환경운동, 새 틀이 필요하다

여름의 문턱에 서 있는 6월이지만 이미 날씨는 한여름 못지않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물난리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모두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소비로 나타난 문제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어떨까?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공염불이다. 애초 '갈색' 토목 개발에서 '녹색'을 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불교환경운동은 전성기를 맞았었다. 새만금 반대를 위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와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다섯 차례의 단식·도법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는 우리 사회에 '환경'이라는 화두를 던져줬다. 정토회 에코붓다의 '빈그릇 운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친환경 공양미 운동' 등 대안적 실천 운동의 불을 지핀 것도 이 시기이다.

하지만 2013년 현재 한국 불교환경운동의 현주소는 '침체 일로'다. 불교계 대표 환경단체였던 불교환경연대는 그 동력을 완전 소진했고 '빈그릇 운동'은 대중의 관심과 뒷심을 받지 못하고 사그러들었다, 2005년부터 준비한 '불교환경의제 21'은 아직도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운동의 침체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고 이를 통해 실천을 꾀하는 아래로 부터의 운동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사실 환경 운동은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문제로 불교의 대사회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1986년 환경의 날 발표한 달라이라마의 환경선언문을 다시 곱씹어 볼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기도와 회향은 중요함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악몽 가위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중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에 가서 잡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초,중,고등학생 부모, 일반인 참가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소원양초 대표 임익준
010-3815-7162 (주문환영)
천부경 수맥탐지특강
풍수지리 정태철 (법사.지사)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재 하실 분 신청바람
대불정능엄신주 특별지도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호법감찰선원에서 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법감찰선원
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탈종공고
• 사 찰 명 : 천운사
• 법 명 : 무령
• 주 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226-4 동호빌딩 4층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법하